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Comparison of Money and Credit Attitud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Housewives*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 수 김 정 훈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 Kim, Jung Hoon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관련 연구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attitudes toward money and credit between housewive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younger and economically dependent. Female college students(n=131) and housewives(n=96) were surveyed for the study.

Results of the study were: 1) Housewives perceive money as a security, Female students did money as the emotional tool and the success. 2) Housewives tended to be more negative to use credit generally and more positive under the certain condition compared with female students. 3) Affective style of money attitudes among female students and cognitive style among housewives were more popular. 4) Negative type of credit attitudes were more popular among both groups. 5) Negative type of credit attitudes were more popular in cognitive style of money attitudes and tolerated type were more popular in affective style.

주제어(Key Words): 돈에 대한 태도(money attitudes), 신용에 대한 태도(credit attitudes)

* 본 연구는 2000년 원광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I. 문제 제기

현대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신용 사용이 빚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넘어 개인경제와 가계의 필수적인 항목이며, 도구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신용은 개인과 가족이 경제적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이용되고 인식되어 재정목적을 이루고,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신용사용은 일반 가계 운영에서 보편적 수단으로 자리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1998)에 따르면, 가구 당 재산규모에 대한 부채 비중은 20.0%이며, 연간 이자액의 부담은 연간소득의 19.3%로서 작은 비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판매신용 대출의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나라 국민들의 신용카드 소유율은 99년 67.1%로 조사되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자료조사)

일반 가계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신용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욕구에 비해 소득이 부족하지만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크고, 생활양식이나 소비활동이 왕성한 경제적 의존 그룹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신용사용은 경제적 특성 상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특징화될 수 있는데,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신용카드 회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은 신용카드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소유비율은 약 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Masuo et al, 2001), 이것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IMF 직후 조사 결과, 백화점 카드 소유비율 8.1%, 신용카드 10.3%(IMF 이전은 각각 8.9%, 13.2%)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같은 조사는 응답 대학생들의 평균 채무액은 522,000원이며, 1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10.0%에 달하였다(송순영, 1998).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가 확산 과정에 있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지던 신용에 대한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가 최근에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신용은 오늘날 현금과 더불어 중요한 금전관리 도구일 뿐 아니라 신용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신중한 관리를 요구하는 재정결정이며 과정이다. 우선 신용은 미래 소비의 감소를 담보로 현재 소비로 인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이며, 따라서 미래의 소비욕망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 즉 현재에서 미래에 이르는 기간간 의사결정으로서 현금을 이용한 재정결정보다 실제로는 훨씬 어렵고 중요한 재정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돈은 단순한 교환의 매개체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은 사랑, 힘, 행복, 안정, 통제력, 자유 등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며, 개인의 심리적인 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Masuo et. al., 2001). 따라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돈에 대한 자신들의 스타일을 갖게되고 이는 개인들의 돈에 대한 심리적인 면과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금전관리 행동인 신용 사용과 돈에 대한 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조사대상자인 주부는 가족의 경제생활을 관리하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독립적 주체자이자 경험자의 특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며, 여대생들은 경제생활 중 소득생활의 대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 의존자이며, 따라서 연령적으로나 이런 경제생활의 제한성으로 인해 경제생활의 경험이 부족한 그룹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부와 여대생들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비교하고자 하며, 신용과 돈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돈에 대한 태도

지금껏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들을 연구해 왔다. 그 중 가장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된 도구는 Furnham's MBBS(1984)와 Yamauch와 Templer(1982)였다. Furnham's MBBS(Money Behaviors and Beliefs

Scale)은 60문항이나 되는 도구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장점 때문에 일부 또는 전 문항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김정훈・정혜정, 1996; Bailey & Lown, 1993; Bailey et al., 1994; ; Hanley & Wilhelm, 1992; Masuo et. al., 2001). Furnham의 도구는 영어권에서 사용된 초기 연구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Obsession, Power, Retention, Security, Inadequacy, Effort/Ability와 같은 6개의 요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Obsseion과 Power, Retention 이외의 요인들은 조사 대상들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Yamuch와 Templer(1982)의 도구는 주로 심리적인 돈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춘 도구로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허경옥 등, 1997; 홍은실・황덕순, 2001; Median et al. ,1996). 여기서는 5가지 요인들로 세분화되었는데, 돈을 권력이나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것, 시간-저장의 차원으로 보는 것, 돈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 권력-지위의 상징을 기반으로 한 질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 불안, 걱정을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것들이다; Power-prestibe, Retention time, Distrust, Quality and Anxiety.

그외 Lim과 Teo(1997)은 Furnham과 Yamauch와 Templer, Tang(1993)의 도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대학생들을 연구하여 8개의 요인구조와 이 중 '평가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Obsession, Power, Budget, Achievement, Evaluation, Anxiety, Retention, Non-generous. 또한 Masuo와 Reddy(1997)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에 의해 문화적 배경에 따른 요인구조의 차이와 성별에 따른 요인 구조들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Cognitive-Power, Behavioral, Affective

2. 신용에 대한 태도

대학생들의 신용과 돈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Hayhoe 등(1999)의 연구는 신용에 대한 태도 구조를 Affective attitudes, Behavioral attitude, Cognitive attitude로 세분화하고, 돈에 대한 태도는 Furnham의 MBBS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유 여부에 따라 Obsession과 Retention, 그리고 신용에 대한 Affective attitudes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Effort/Ability와 Cognitive credit attitudes는 신용카드를 4개 이상 가진 학생들과 4개 미만인 학생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용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수록 신용에 대해 긍정적한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사용 결과에 대해 보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성별, 나이, 학년, 종교, 신용카드 개수, 채무량등이 이들이 빚에 대해 갖은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Davies, & Lea, 1995). 그 결과, 남성이, 나이나 학년이 높을수록 현재 채무량이 클수록 빚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자기통제력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빚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수가 많을수록,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비해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Lea 등의 연구(1995)는 경제 사회화, 빚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 신용 사용정도, 금전관리 능력, 빈곤지수등이 소비자들의 빚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또한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금전관리를 잘 못하고 있고, 자신의 금전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았으며, 보다 짧은 기간 개념을 갖고 있었고, 아이들의 선물에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채무관련 태도는 어쩔 수 없는 경우 빚진 돈을 안 갚을 수 있으며(30%), 안 받을 수도 있다(39%)다고 응답하였으며, 빚을 가능한 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은 약 47%정도였다(허경옥, 2000).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2001년 6월 전라북도 익산시 여대생 131명과 주부 96명을 자기 기입식 질문지에

의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 돈에 대한 태도, 신용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돈에 대한 태도는 17문항, 신용에 대한 태도는 24문항이었다. 이들 돈에 대한 태도와 신용에 대한 태도는 5점 Likert-scale로 측정하였다; 매우 그렇다(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

돈에 대한 태도는 Yamauch와 Templer의 돈에 대한 태도 도구를 한국 조사대상자들에게 재조사하여 요인분석한 허경옥 등(1997)의 연구에서 요인변량이 .45 이상인 질문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조사대상자들의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 결과, 상대적 요인적재량에 의해 요인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5개 하위구조를 얻었다. 그런데 이 요인구조에 속하는 항목들이 허경옥 등(1997)의 연구에서 얻어지 요인 구조와 같은 안정적 구조를 보였으므로 허경옥 등(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명을 채택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의 5개 하위구조는 안전함, 감정충족, 성공척도, 불안의 원천, 인색함이었다. 이들은 돈에 대한 태도를 64.49% 설명할 수 있었으며, 각 요인들의 신뢰도는 각각 안전함은 .831, 감정충족은 .829, 성공척도는 .868, 불안의 원천은 .614, 인색함은 .538이었다.

신용에 대한 태도는 Davies와 Lea(1995), Lea 등(1995)의 연구 문항을 조합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을 요인적재량 .45와 상대적 적재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탐험적 요인분석를 하여 4개의 요인구조를 얻었으나 제4요인은 신뢰도가 낮아 제외하였다. 3개 하위 요인들은 신용에 대한 태도를 56.11% 설명하였으며, 이들의 신뢰도는 각각 부정적

〈표 1〉 돈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1	2	3	4	5
목표를 위해 저축하는 편이다.	.80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두고 있다.	.85				
만일을 위해 재정계획을 하는 편이다.	.83				
계획한 예산을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71				
최고품을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편이다		.54	.55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83			
기분이 나쁠 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83			
돈을 지출하는 계획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79			
때때로 그들의 능력이나 성취와 관계없이 나보다 돈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났다고 느낀다.			.81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다.			.73		
돈이 성공의 궁극적인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49	.46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랑할 때가 가끔 있다.			.63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늘 걱정이 된다.				.78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걱정이 된다.				.78	
물건을 살 때마다 꼭\속아서 사는 것 같다.					.48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너무 비싸서 못사겠다' 라고 말하는 편이다.					.81
물건을 산 후에 꼭 '다른 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든다.					.74
신뢰도	.831	.829	.868	.614	.538

<표 2> 신용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1	2	3	4
나는 돈을 빌리는 것이 싫다.	.62			
돈을 빌려도 좋은 이유는 없다	.63			
은행들은 학생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66			
학생들은 빚을 얻어서는 안 된다.	.75			
휴가를 가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한다면 휴가를 포기해야한다.	.63			
내가 갚을 수 있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좋다		.76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을 꾸어도 좋다.		.81		
비싼 물건을 사려면 미리 계획을 한다.			.84	
각자는 자신이 버는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65	
대부분 사람들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산다				.65
요즘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너무 쉽다				.69
신뢰도	.725	.531	.509	.365

인식 .725, 조건적 허용 .531, 예산관리 .509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통계절차를 거쳤으며, t-test, ANOVA,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관계 및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신세대들인 여대생들의 평균연령은 20.11(SD 1.97)세였으며, 월평균 용돈액은 2십2만 5천원(SD 127,928)이었다. 이들 중 32.9%는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갖고 있었으며, 67.1%는 신용카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구세대들인 주부들의 평균연령은 40.46세(SD 6.65)였으며, 첫째아이의 평균연령은 15.56세, 막내아이의 평균연령은 11.98세로서 가족생활주기 단계 중 확대기로서 경제생활이 가장 활발한 단계이다. 또 이들 가정의 월평균 소득액은 약 2백4십1만5천백삼십2원(SD 1,097,240) 이었다. 조사대상 주부들 중 18.9%는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7.8%(52명), 대학 졸업 이상이 38명 42.2%였다.

2. 돈에 대한 태도 비교

여대생들과 주부들의 돈에 대한 태도는 4개의 하위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이 중 돈을 안전의 척도로 인식하는 영역에서만 주부들이 여대생들보다 높은 값을 보였을 뿐, 돈을 감정충족의 도구로, 성공의 척도로서 인식하거나, 돈이 불안의 원천이 되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한 인색함은 모두 여대생들이 주부들보다 더 큰 값을 보였다.

따라서 주부들은 돈과 관련하여 여대생들보다 재정적 안전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저축하고, 예산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두 그룹의 평균 차이는 0.6으로 꽤 큰 편이었다(여대생은 M=3.07, 주부는 M=3.67).

여대생들은 주부들에 비해 돈을 감정 충족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쓰거나 기분에 따라 돈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돈을 감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다른 하위 영역들에 비해서 주부들과 여대생 그룹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두 그룹의 평균 차이는 1.09였다(여대생은 M=3.28, 주부는 M=2.19).

또 여대생들은 돈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주부들에 비해 돈의 양으

〈표 3〉 돈에 대한 태도

	여대생		주부		t-value p
	M	SD	M	SD	
안전의 도구	3.07	.89	3.67	.65	-5.62 ***
목표를 위해 저축하는 편이다.	2.96	1.07	3.74	.82	-5.96 ***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두고 있다.	3.23	1.16	3.56	1.00	-2.20 **
만일을 위해 재정계획을 하는 편이다.	3.03	.99	3.69	.82	-5.14 ***
계획한 예산을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3.06	1.03	3.73	.85	-5.09 ***
감정충족의 도구	3.28	.90	2.19	.74	9.56 ***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3.36	1.06	2.39	1.00	6.69 ***
기분이 나쁠 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2.97	1.07	2.01	.85	6.84 ***
돈을 지출하는 계획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3.51	1.00	2.17	.92	9.99 ***
성공의 척도	2.26	.75	1.91	.52	4.02 ***
때때로 그들의 능력이나 성취와 관계없이 나보다 돈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났다고 느낀다.	2.55	.99	2.01	.86	3.44 ***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다.	2.36	1.03	1.90	.61	3.92 ***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랑할 때가 가끔 있다.	1.98	.84	1.81	.72	.12
불안의 원천	3.61	.77	3.39	.80	1.99 **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늘 걱정이 된다.	3.34	.99	3.20	.96	.32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걱정이 된다.	3.88	.88	3.59	.86	2.46 ***
인색한 태도	2.87	.60	2.57	.61	3.57 ***
물건을 살때마다 꼭 속아서 사는 것 같다.	2.54	.68	2.28	.71	2.66 ***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너무 비싸서 못사겠다' 라고 말하는 편이다.	2.92	.96	2.72	.99	.15
물건을 산 후에 꼭 '다른 데서 더 싸게 살수 있었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든다.	3.15	.83	2.70	.88	3.77 ***

*p<.10, **p<.05, ***p<.01

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등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돈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향은 다른 돈에 대한 하위척도들에 비해 가장 낮은 값을 보여서(여대생은 M=2.26, 주부는 M=1.91) 일반적으로 주부들이나 여대생들이나 돈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는 비교적 낮았다.

여대생들은 주부들에 비해서 돈 문제에 더 많이 불안해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는 0.22로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그 차이가 적었다. 또한 이들의 평균값은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높았는데(여대생은 M=3.61, 주부는 M=3.39) 따라서 여대생이나 주부 모두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또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대생들은 주부들에 비해 돈에 대해 인색함을 나타냈는데(여대생 M=2.87; 주부 M=2.57), 즉 물건을 속아서 산 것 같은 느낌이나 더 싸게 살 수 있었을텐데 하는 느낌이 보다 강했고, 또 자신 가진 돈과 관계없이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여대생들이 돈에 대한 안정적 태도가 낮고, 감정적 태도와 불안감이 높은 것과 관련해 볼 때 자신들의 금전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평가가 낮으므로 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3. 신용에 대한 태도

여대생들과 주부들의 신용에 대한 태도는 3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조건적 허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예산관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그 결과, 여대생들보다 주부들이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으며(여대생 M=3.63; 주부 M=4.09), 조건에 따라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다 허용하는 태도를 보였다(여대생 M=2.89; 주부 M=3.13). 그런데 여기서 여대생들과 주부들 사이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0.46)가 조건적 허용 태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0.24)보다 컸다. 그러나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부정적 태도가 조건적인 허용 태도보다 높은 값을 보여서 신용을 얻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달가와 하고 있지 않았으며, 휴가와 같은 지출 항목을 위한 비용 마련의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주부들로 대표되는 구세대들은 대학생으로 대표되는 신세대들이 신용을 얻는 것에 대해 강력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주부들의 예산관리 태도 경향이 학생들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여대생 M=4.08; 주부 M=4.12).

4.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

돈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군집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돈에 대한 태도 요인들의 평균값과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표 5〉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돈에 대한 태도 차이

	유형1(n=125) (인식형)		유형2(n=79) (정서형)		t-value, p
	M	SD	M	SD	
감정충족의 도구	2.19	.69	3.73	.56	-17.38***
불안의 원천	3.34	.78	3.78	.72	-4.06***
성공의 척도	1.88	.54	2.46	.72	-6.59***
안전의 도구	3.68	.63	2.82	.86	8.17***
인색한 태도	2.63	.59	2.92	.63	-3.33 ***

*p<.10, **p<.05, ***p<.01

〈표 4〉 신용에 대한 태도

	여대생		주부		t-value p
	M	SD	M	SD	
부정적 인식	3.63	.65	4.09	.56	-5.36 ***
나는 돈을 빌리는 것이 싫다.	3.90	.94	4.27	.77	-3.03 ***
돈을 빌려도 좋은 이유는 없다	3.04	1.03	3.47	1.09	2.93 ***
은행들은 학생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3.89	.96	4.28	.92	-2.91 ***
학생들은 빚을 얻어서는 안 된다.	3.79	.92	4.43	.60	-5.99 ***
휴가를 가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한다면 휴가를 포기해야한다.	3.54	.94	4.00	.92	-3.58 ***
조건적 허용	2.89	.87	3.13	.77	-2.03 **
내가 갚을 수 있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좋다.	2.84	1.09	3.33	1.03	-3.30 ***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을 꾸어도 좋다.	2.95	.94	2.94	.92	.93
예산관리	4.08	.66	4.12	.61	.64
비싼 물건을 사려면 미리 계획을 한다.	3.88	.91	4.02	.73	.21
각자는 자신이 버는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4.29	.74	4.22	.67	.53

*p<.10, **p<.05, ***p<.01

〈표 6〉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별 신용에 대한 태도 차이

	유형1(n=73) (허용형)		유형2(n=124) (부정형)		t-value, p
	M	SD	M	SD	
부정적 인식	3.34	.58	4.13	.51	-9.72***
조건적 허용	3.38	.64	2.77	.84	5.36***
예산관리	3.79	.70	4.29	.52	-5.36***

*p<.10, **p<.05, ***p<.01

바와 같다. 그 결과, 유형 1은 유형 2에 비해 돈에 대한 하위요인 중 돈을 안전의 도구로 인식하는 태도가 컸으며, 유형 2는 유형 1에 비해 돈을 감정충족의 도구로 인식하는 정도, 불안의 원천이 되는 정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정도, 돈에 대해 인색한 태도 정도의 값이 높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유형 1을 돈에 대한 태도 중 인식형, 유형 2를 정서형이라 명명하였다.

신용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군집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신용에 대한 태도 요인들의 평균값과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결과, 유형 1은 부정적 인식과 예산관리에서 유형 2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유형 2는 조건적 허용에서 유형 1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연구자는 유형 1을 신용에 대한 허용형, 유형 2를 신용에 대한 부정형으로 명명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 유형은 조사대상 중 인식형이 61.3%, 정서형이 38.7%으로 인식형이 많았는데 여대생의 경우는 인식형이 34.8%, 정서형이 65.2%로 정서형이 많았으며, 주부들은 대부분의 주부들이 인식형으로 분류되어 대조를 보였다(인식형 93.5%: 정서형 6.5%). 여대생과 주부들의 돈에 대한 유형의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7〉.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은 조사 대상 여대생이나 주부 모두 부정형이 각각 57.1%와 70.6%로 많았고, 허용형은 42.9%와 29.4%였다. 그러나 그 차이는 주부들의 경우 훨씬 커서 주부와 여대생들의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7〉.

조사대상자들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에 따른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8〉. 따라서 인식형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에서는 부정형의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이 69.8%, 허용형이

〈표 8〉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		전체
		허용형	부정형	
돈에 대한 태도 유형	인식형	35 30.2%	81 69.8%	116 100.0%
	정서형	37 46.8%	42 53.2%	79 100.0%

X^2=5.60 p=.023

〈표 7〉 대학생과 주부들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

여대생	주부		전체			
	N	%	N	%	N	%
돈에 대한 태도 유형(X^2=73.24, p=.001)						
인식형	39	34.8	86	93.5	125	61.3
정서형	73	65.2	6	6.5	79	38.7
계	112	100.0	92	100.0	204	100.0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X^2=3.75, p=.037)						
허용형	48	42.9	25	29.4	73	37.1
부정형	64	57.1	60	70.6	124	62.9
계	112	100.0	85	100.0	197	100.0

30.2%로 부정형이 많았고, 정서형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에서는 허용형의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이 46.8%, 부정형이 53.2%로 허용형이 많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적 차이와 경제생활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주부와 여대생들의 신용에 대한 태도와 돈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자 하며,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여대생 131명, 주부 96명이 표집되었으며, 돈에 대한 태도는 허경옥 등(1997)의 연구, 신용에 대한 태도는 Davies와 Lea(1995), Lea 등(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돈에 대한 태도는 안전함, 감정충족, 성공척도, 불안의 원천, 인색함의 5개 하위구조를, 신용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인식, 조건적 허용, 예산관리의 3개 하위구조를 얻었다.

연구 결과, 1) 주부들이 여대생들보다 돈을 안전의 척도로 인식하는 경향이었으며, 여대생들이 주부들보다 돈을 감정충족의 도구로, 성공의 척도로서 인식하고, 돈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있었으며,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2) 여대생들보다 주부들이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으며, 조건적으로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다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3) 여대생들은 돈에 대한 태도 유형 중 정서형이, 주부들은 인식형이 더 많았으며,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은 여대생이나 주부 모두 부정형이 많았으며,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돈에 대한 태도 유형에 따른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인식형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에서는 부정형의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이, 정서형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에서는 허용형의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이 많았다.

본 연구 결과, 주부들은 돈을 보다 실질적인 도구로서 생각하고 현실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으나, 여대생들은 돈을 감성이나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부들은 돈을 관리하는 경험이 많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고 해결해야할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경제적 주체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룹이다. 이에 비해 여대생들은 신세대 그룹으로서 소비욕구가 다른 그룹들에 비해 크고, 우리 경제와 가계의 특성상 자신의 경제생활 거의 전부를 부모에게 의존하므로 이들의 경제생활은 주로 소비생활에 치중되고 있다. 이러한 두 세대의 경제적 역할 특성의 차이가 돈에 대한 태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Masuo 등의 연구(Masuo et al. 2001)에서 경제적 경험이 더 많은 아시아계 미국 여대생들이 경험이 부족한 아시아 여대생들보다 돈을 보다 실질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이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역할을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부들이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목적이나 상황에서는 신용사용을 보다 허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하여 가계관리에서 신용 사용의 보편성 내지 불가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가계관리에서 신용의 사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재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돈에 대해 인식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정서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예산관리를 더 잘 실행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신용을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신용을 사용할 때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대생들이 돈에 대해 현실적인 개념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 욕구가 큰 여대생들에 대한 신용 사용의 유혹이 큰 시장 상황에서 이들 신세대 그룹들에게 소비 욕구를 조정·통제하는 소비자 교육뿐 아니라 돈을 현실적인 도구로서 인식하고, 주체적이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요청된다.

특히 요사이 대학생들에게 확산되는 신용카드는 현금의 대체수단으로서 또 욕구의 현재 충족이라는 시간적 특성을 갖고 있어 금전관리 행동과 기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돈에 대한 도구적 인

식을 확립하는 것이 이로 인한 학생들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여대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였으나, 조사 지역과 표집 대상수에서 한계가 있어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을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 지역이나 표본수를 보다 확대하여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비교 연구 역시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정훈, 정혜정(1996).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MBBS 적용 및 비교 문화적 관점. 원대논문집, 32-2, 521-535.

송순영(1998). 신세대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8-05.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채권자의 가정부채 회수상의 문제점과 대책. 1998년 4-8월 자료조사 http://www.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2000). 제5회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결과. 1999년 8월 자료조사 http://www.cpb.or.kr/

허경옥(2000).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소비자태도 분석. 소비자학연구, 11(3), 193-217.

허경옥 등(1997).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43-60.

홍은실, 황덕순(2001). 화폐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도 한국소비문화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3. 24 한남대학교, 269-280.

Bailey, W.C. & Lown, J. (1993).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psychology of attitudes towards money.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7*, 391-402.

Bailey,W.C., Johnson, P., Lawson, R.J., Williams, P.K. & Lown, J. (1994). An Exploratory study of the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 Using data from three nations.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178-185.

Davies, E, & Lea, S.E.G. (1995). Student Attitudes to student debt. *J. of Economic Psychology, 16*, 663-679

Furnham, A. (1984). Many sides of the coin: The Psychology of money us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 95-103.

Hanley, A. & Wilhelm, M.S. (1992). Compulsive buying: An Exploration into self-esteem and money attittud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3*, 5-18.

Hayhoe, C.R., Leach, L., & Turner, P.R. (1999). Discriminating the number of credit cards held by college students using credit and money attitud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0*, 643-656.

Lea, S.E.G. et al (1995). Psychological factors in consumer debt: money management, economic socialization, and credit us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81-701.

Lim, V.K.G. & Teo, T.S.H. (1997). Sex, money and financial hardship: An empirical study of attitudes towards money among undergraduates in Singapor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 369-386.

Masuo, D.M. & Reddy. .M. (1997). Comparison of students' money attitudes : A Cross-cultural sampling of selected U.S. and japan Universities. *Europea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 185-191.

Masuo, D.M., Kim, J.H., Malroutu, L. & Hanashiro, R. (2001). Money Beliefs and Behaviors: A Comparison of Korean, Japanese and Asian American Female College Students. *4th Proceedings of Asian Consumer and Family Economics Association Conference.* July 4-6, 2001, Shijiazhua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87-195.

Median, J.F., Saegert, J., & Gresham, A. (1996). Comparison of Mexican-American and Anglo-American attitudes toward mone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0*, 124-145.

Tang, T.L. (1993). The meaning of money: Extension and exploration of the money ethic scale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 93-99.

Yamauchi, K.T. & Templer, D.I. (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522-528.